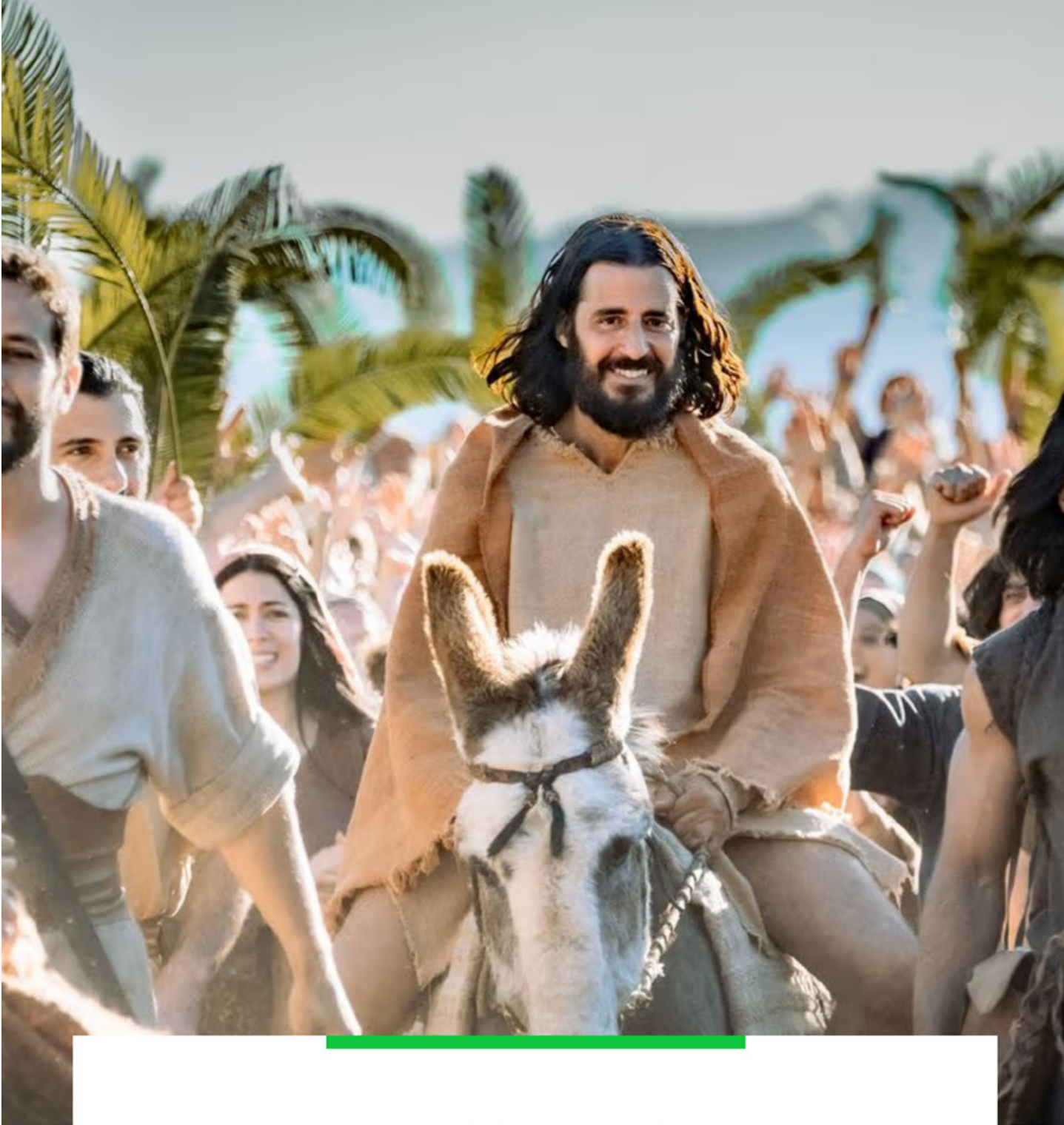




데이빗 영맥주석

스가랴서

David Spriritual Commentary

들어가는 말

'데이빗 영맥주석'은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한 주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셨을 때는 분명히 무슨 의미를 두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올바른 성경해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데이빗 영맥주석'은 저자가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여쭙가면서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주석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값질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싶다면 이 주석을 권해 드립니다. 이 주

석으로 성경을 읽을 때 당신 삶이 놀랍게 변화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
게 될 것이며 <로고스>가 아닌 <레마>로 성경
이 심령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 주석은 설교하는 목회자에게도 매우 귀한
주석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목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아무쪼록 이 주석을 통
해 성경이 활짝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저자 데이빗리 목사 올림

[스가랴서 1장] =====

[스 1:1] 다리오 왕 제이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와 말씀이 잇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스가랴는 잇도의 손자였습니다. "... 여호와와 말씀이 잇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1절 하). 잇도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1차 포로귀환 때에 귀환했던 제사장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느 12:1]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느 12:2]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느 12:3] 스가냐와 르훔과 므레못과

[느 12:4] 잇도와 긴느도이와 아비아와"

스가랴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역시 제사장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

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했던 때는 기원전 520년 8월이었습니다. "다리오 왕 제이년 여덟째 달에..."(1절 상). 다리오의 통치기간이 기원전 522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다리오 왕 제이년'은 기원전 520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학개 선지자도 다리오 왕 제이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6월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학개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 1:1] 다리오 왕 제이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어찌하여 하나님은 동일한 때에 두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셨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성전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실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때는 이스라엘의 가장 힘든 때였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생활을 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황폐해진 땅에서 살아가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사마리아인의 잦은 방해로 인해 성전 건축이 중단되다 보니 마음마저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기원전 536년부터 시작된 성전 건축이 16년동안 중단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얼마나 깊이 내려앉았는지 보여줍니다.

어쩌면 우리의 상황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을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좋아지지 않는 환경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나님을 위해 좀 더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싶지만 막상 현실적인 어려움을 당면하고 나니 제대로 헌신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느껴야 하는 절망스러운 마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가랴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스 1:2]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스 1:3]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

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

[스 1:4]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와 말이니라

[스 1:5]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스 1:6]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3절 상)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3절 하)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돌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돌아가다' <슈브>라는 말은 '돌아가다', '회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어떤 관계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관계인가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해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God)'입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단순히 '신(God)'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 '신(God)'으로 만납니다. 하나님을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물론 '엄격하신 아버지'와 살고 있는 분은 다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불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엄격한 아버지와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기에 하나님 께 나아가는 것이 그리 고통스러운 것은 아닐겁니다.

“[말 4:6]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위 말씀은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스가랴의 말과 똑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부분이 있다면 스가랴는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했고 말라기는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아버지와 자녀가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은 이걸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과 사귄도 이걸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속 1:7] 다리오 왕 제이년 열한째 달 곧 스باط월
이십사일에 잇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속 1:8]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
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속 1:9]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이
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속 1:10]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
내신 자들이니라

[속 1:11]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스가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스가랴서에는 모두
8개의 환상이 소개됩니다. 스가라는 환상을 '밤'에
봤습니다. "내가 밤에 보니..."(8절 상). '밤'에 환상
을 봤다는 것 때문에 아마도 꿈을 꿔다고 생각하
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꿈이라기 보

다는 너무나 선명하고 그 의미가 분명하기 때문에 환상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본 것처럼 스가랴도 베드로처럼 환상을 봤을 것입니다.

“[행 10:10]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행 10:11]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매어 땅에 드리웠더라”

'황홀한 중' <엑스타시스>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홀'이라는 뜻 외에 '비몽사몽', '무아지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번역 NIV에서는 이 단어를 '입신(Trace)'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입신해 본 사람은 알 수 있지만 입신하게 될 때 사람의 의식은 분명히 살아 있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신을 하는 사람의 경우엔 많은 영적 체험을 합니다.

스가라는 선지자로서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그로서는 하나님과 많은 대면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런 스가랴에게서 '황홀한' 기도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런 영적 기도체험은 성경에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다니엘도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야고보 역시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치고 이런 영적체험이 없는 사람은 아마도 찾기 힘들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지만 오늘날 교회는 이런 영적체험을 거부합니다. 세상의 인문학이 교회의 가르침을 대신하다보니 자꾸만 성경의 영적체험이 무시당하고 맙니다. 방언하는 것도 무시 당합니다.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무시 당합니다.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무시 당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왜 곡당하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마도 스가랴의 환상도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무시당하고 거부당할 것입니다.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오늘날 스가랴가 교회 목사로 있었다면 틀림없이 '이단 목사'라고 정죄를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잃을지라도 성경 만큼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가 본 첫번째 환상은 말과 연관된 것입니

다. 그는 처음에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8절 중). 그런데 그 사람 뒤에 또 다른 말들이 있었습니다. "...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8절 하). 처음 붉은 말과 그 뒤에 있는 붉은 말은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붉은 말을 타신 분은 그 뒤에 서 있는 세개의 말을 탄 자와는 다른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스가라는 이들이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맨 앞에 붉은 말을 타신 자가 말씀했습니다. "...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10절 하). 그분의 말을 통해 뒤쪽에 서 있는 세개의 말을 탄 자들이 천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땅에 두루 다니는 것'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천사가 처음 붉은 말을 타신 분에게 말하기를 "...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11절 하)고 보고했습니다. 그 당시는 바사 제국이 가장 왕성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조용하고 평안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와 천사'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궁금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붉은 말'을 탔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세상을 '진노'와 '피흘림'을 담당하는 천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성경에서의 '붉은 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스가랴가 본 말의 색들이 중요하다면 '붉은 말'은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고 '자주색'은 평안을 상징하고 '흰색'은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의미는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맨 앞에 선 천사와 그 뒤에 선 천사들은 모두 예수님과 연관된 천사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천사들은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가 본 천사들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 것이고 예수님과 연관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이스라엘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스 1:12] 여호와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

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칠십 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스 1:13]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스 1:14]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스 1:15]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 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스 1:16]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기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 1:17]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그런데 세 천사의 보고를 듣고서 '여호와의 천사'가 굉장한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따지는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세 천사의 보고를 달갑

지 않게 느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 천사가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고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세 천사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천사'되신 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가 평안하지도 않고 조용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여호와 하나님께 따지듯 질문했습니다. "...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칠십 년이 되었나이다 하매"(12절 하). 70년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포로가 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선 가장 치욕적인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자녀가 세상의 포로가 된 것은 말할 수 없는 치욕일 것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께서 그런 감정을 느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강하게 하나님께 따져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반응이 매우 따뜻해졌습니다. "내가 불쌍히 여기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16절 상).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

기셨기 때문입니다. 70년이란 긴 세월을 깨고 드디어 하나님의 위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희망적인 약속을 하셨습니다. "...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16절 하). '먹줄이 쳐지다'란 말은 건축이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성전'입니다. 성전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 1:18]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스 1:19]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흠뜨린 뿔이니라

[스 1:20] 그 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스 1:21]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흠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흠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사가라는 또 다른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뿔' 환상입니다. 그는 4개의 뿔을 보았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18절). '눈을 들어 본즉'이란 말은 눈을 떠서 봤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안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영의 눈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환상은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는 절대로 환상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영의 눈이 열려야만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영의 눈이 열려야만 볼 수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들은 볼 수 없습니다.

"[고전 2:9]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스가라가 본 '뿔'은 모두 4개였습니다. 사가라

는 그 '뿔'의 의미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흠뜨린 뿔이니라"(19절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흠뜨린 나라는 누구입니까? 앓수르와 바벨론과 바사와 애굽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흠뜨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와 제사장들과 우상숭배자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4개의 뿔이 존재합니다. 우리들 교회에도 존재하며 우리들 가정에도 존재합니다. 이 4개의 뿔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4개의 뿔을 파쇄해야 합니다. 우리들 교회를 흠뜨리는 4개의 뿔은 무엇입니까? 전통과 악습에 의한 예배, 거만하고 교만한 목회자, 불순종적인 직분자, 그리고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힌 교인입니다. 가정을 흠뜨리는 4개의 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부모, 자녀를 사랑치 않는 부모, 교회에 헌신하지 않는 가정,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녀들입니다.

사가라는 또 다른 환상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4명의 대장장을 봤습니다. "그 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20절). '대장장'

이<하라심>은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뿔을 파쇄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가정을 가정되게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나라를 나라되게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장장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대장장이'가 되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사가라는 "...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21절 상)라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흠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21절 하)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대장장이들이 하는 일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이 대장장이들은 먼저 4개의 뿔을 두렵게 합니다. 망치를 들고 있으니 무섭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흠뜨리고 교회를 흠뜨리는 악한 세력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바로 대장장이입니다. 사회를 흠뜨리고 나라를 흠뜨리는 악한 세력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바로 대장장이입니다. 당신은 이런 대장장이가 되길 원하십니까?

[스가랴서 2장] =====

[스 2:1]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 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스 2:2]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스 2:3]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스 2:4]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스 2:5]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스가랴의 세번째 환상입니다. 스가랴의 환상은 이전 환상과 같은 시간에 보여진 것입니다. 원문에는 '그리고'<와우>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어서 보여진 환상들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번째 환상에서 사가랴는 '한 사람'을 봤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1절).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은 단순히 '사람'<아담>이 아닙

니다. <아담>이라는 히브리어 말은 보통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쓰인 '사람'<이쉬>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고귀한 사람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호와의 천사'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통해 그 신빙성이 더욱 확증됩니다.

사가라는 그 '한 사람'이 측량줄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1절 하). 이 '측량줄'은 건축에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이미 앞서 1장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위에 먹줄을 쳐 놓으셨다고 언급되었습니다.

"[스 1:16]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기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먹줄이 바로 측량줄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이시라면 그 측량줄은 예수께서 잡고 계신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측량줄을 잡고 계셨을까요? 이

는 예루살렘을 재건키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넓이와 길이를 측량하시기 위해 측량줄을 잡고 계신 것입니다. "...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2절).

반드시 예루살렘은 재건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예루살렘은 세워져야 합니다. 하늘 나라에도 예루살렘이 세워질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나 하늘 나라에서 '새 예루살렘'을 세우며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계 21:2]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다른 천사는 스가랴에게 예루살렘 성이 성곽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4절 하). 그러면서 곧이어 왜 성곽 없는 성읍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 주었습니다.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5절). 예루살렘이 성곽이 필요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예루살렘 성을 덮으시고 불로 성벽을 쌓기 때문입니다. '불로 둘러싼 성곽'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혀진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의 교회가 성령의 불로 둘러 쌓여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불은 원수를 막아줍니다. 출애굽했을 때 홍해에 막혀 사면초가의 상태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구해줬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닙니까? 구름기둥이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서있고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을 환하게 빛으로 비춰주지 않았습니까?

“[출 14:19]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출 14:20]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으므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 성을 포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왕하 6:17]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영광은 이처럼 예루살렘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루살렘에 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만 예루살렘에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도 예루살렘에 살아야 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찬 곳입니다. 이곳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고 침범치 못할 것입니다.

[스 2:6]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 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

의 말씀이니라

[스 2:7]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스 2:8]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스 2:9]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
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
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
리라

[스 2:10]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의 딸아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
이라

[스 2:11]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
리라

[스 2:12]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
니

[스 2:13]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
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

니라 하라 하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6절 상). '북방 땅'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바로 7절에서 뒷받침 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7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시온의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호와와 말씀에 시온의 딸아..."(10절 상). 하나님은 시온의 딸들에게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명하셨습니다. "... 노래하고 기뻐하라..."(10절 중). 하나님께서 시온의 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들이 노래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원하심이 왠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썩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하였지만 사실상 소수에 불과해서 도저히 나라다운 나라를 세울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노래하고 기뻐할만한 여유는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에도 빠듯한 시간을 보내야

만 했는데 어떻게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래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10절 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노래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당신에게 쏙 들어옵니까? 쉽게 납득이 됩니까? 정신이 말아지는 말씀입니까? 전혀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갑게 받아드리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왜 우리는 노래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크게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 많은 아버지가 돈 뭉치를 가지고 우리 집을 방문하신다면 노래하고 기뻐할만한 이유가 되겠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그렇게 기뻐할만한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 상태인 것 같습니다.

[사가랴서 3장] =====

[스 3:1]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와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스 3:2]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사가랴의 네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가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서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와 천사 앞에 섰고..."(1절 상). 그런데 여호수아 옆에 '사탄'이 서 있었습니다. 왜 사탄이 여호수아 옆에 서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탄이 여호수아를 방해하기 위함입니다. "...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1절 하). '대적하다' <사탄>는 말은 사탄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원래 '사탄'의 이름 뜻이 '적대자'란 의미인데 공교롭게도 '대적하다'라는 단어가 <사탄>이라는 히브리 말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처럼 우리 곁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 서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탄은 우리를 돕기 위해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서 계시는 분은 '예수' 뿐이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 역할을 담당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요 14: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2절 상). '책망하다' <가아르>라는 말은 '꾸짖다', '책망하다', '견책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한 이유는 예루살렘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2절 중).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택하셨습니다. 그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선민으로 삼으셨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이 죄악으로 더

럽혀짐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셨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멸망을 당했을지라도 그래도 사랑하셨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이 비참한 모습으로 고국으로 돌아왔을지라도 여전히 저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2절 하)고 표현하셨습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는 그 가치를 잃어버린 나무입니다. 아무 짝에도 쓸모 없는 나무입니다. 차라리 불에 태워지면 좋을 번 했던 나무입니다. 이와 같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스 3:3]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서 있는지라

[스 3:4]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스 3:5]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하나님은 대제사장으로 있는 여호수아를 보셨습니다. 그의 모습이 너무나 더러웠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깨끗해야 합니다. 성결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대제사장의 옷이 더럽혀져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더럽혀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습니다. "...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4절 하). '아름다운 옷' <마할라차>은 오직 이곳에서만 언급된 단어입니다. 성경 번역본마다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한글개역성경은 '예복'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칠십인역본(LXX)은 '긴 겹옷' <포데레>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성경 RSV는 '값비싼 옷'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성경 NASB는 '축제복'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경 번역본마다 각기 다른 의미로 번역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것이 '천국의 옷'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히신 옷은 세상의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옷을 그의 자녀에게 입혀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신부된 자들에게 옷을 입

혀 주십니다.

“사 61:10]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겹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하나님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때 세마포 옷을 입혀 주십니다. 이 세마포는 빛나고 깨끗한 옷입니다. 이 세마포 옷은 오직 옳은 행실을 행하는 성도들의 옷입니다. 이 세마포는 어린 양의 신부만이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계 19:7]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계 19:8]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하나님은 여호수아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그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5절 중). '정결한 관'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만이 쓸 수 있는 관이었습니다.

"[출 28:4]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겹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은 자녀에게 '관'을 씌워주십니다.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딤후 4:8]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면

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약 1:12]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쓰고 있는 관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띠를 띠게 하셨습니다. 이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출 28:36]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우리는 '아름다운 옷'을 입기 위해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정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정욕에 물들지 않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정결한 관'을 씌움받기 위해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귀의 대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속 3:6] 여호와와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속 3:7]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과 왕래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셨습니다. "...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7절 하). '왕래하게 하리라' <웨나타티레카 마헬레킴>는 말을 직역하면 '내가 너에게 보행길들을 주리라'는 의미입니다. '보행길'이라는 말은 '통로'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 통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직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유롭게 내통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매우 엄청난 특권인 셈입니다. 마치 모

세에게 주어진 특권과도 같은 것입니다. 날마다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눴던 모세처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민 7:89]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 었더라”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던 이런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께서 그 통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통로를 만들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이는 통로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마 27:50]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마 27:51]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

가 터지고”

그렇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 당하심으로 지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졌을 때 '새롭고도 산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히 10: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
나니

[히 10: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뚫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 길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길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지고 그 길을 백성이 건넜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육체가 갈라지고 갈라진 틈으로 새롭고도 산 길이 열린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합니다.

[속 3:8]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
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속 3:9]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
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
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
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속 3:10]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너
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이 '예표의 사람
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이들은 예표의 사
람들이라..."(8절 중). '예표'<모페트>라는 말은 '장
엄한 것' 또는 '아름다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런데 이것은 '이적'이나 '기사' 또는 '표적'이라는
단어로도 사용됩니다. '예표의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표적을 직접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하나님께
서 보여주신 표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기적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날

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봐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꿈으로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 속에서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를 통해서도 볼 수 있어야 하고 자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볼 수 있어야 하고 학교에서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통 기적으로 둘러 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돌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돌에 일곱 눈'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9절 중). '일곱 눈'은 '하나님의 눈'을 의미합니다. '일곱'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수를 의미하듯이 '일곱 눈'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는 온 세상을 모두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온 세상 사람을 다 보시는 눈입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보시는 눈입니다. 나의 생각까지도 모두 보시는 눈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한 '일곱 눈'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계 5:6]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스가랴서 4장] =====

[스 4:1]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스 4:2]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스 4:3]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스가랴는 또 다른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3절 상). 스가랴는 환상의 의미가 매우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환상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자주 보지만 대부분 성도는 아주 가끔씩 보게 됩니다. 물론 전혀 환상을 보지 못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환상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환상의 의미

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환상을 보았을지라도 해석하지 못하면 중요한 것을 놓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스가라는 보았던 '순금 등잔대'(정금등대)에는 기름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펼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금 등잔대'에 '일곱관'이 있어서 그 관이 두 감람나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곱관'의 역할은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뽑아 '순금 등잔대'에 연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순금 등잔대'(정금등대)는 성소를 밝히기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성막에도 정금등대가 있었고 솔로몬 성전에도 정금등대가 있었습니다. 정금등대는 성소를 밝히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순금 등잔대'를 보여주신 것은 예루살렘에 세워질 성전에 있어야 할 '순금 등잔대'(정금등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소에는 반드시 순금 등잔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납니다. 빛이 있어야 어둠이 떠나게 됩니다. 순금 등잔대의 역할은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져야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결실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순금 등잔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며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선민임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에게도 '순금 등잔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둠이 떠나고 빛이 임하게 됩니다. 순금 등잔대의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 줍니다. 순금 등잔대의 빛이 비취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 줍니다.

”[고전 3:16]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스승 4:4]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
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스승 4:5]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
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
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다 하니

[스승 4:6]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
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
니라

[스승 4:7] 큰 산아 네가 무엇이나 네가 스룹바벨 앞
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승 4:8]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
되

[스승 4:9]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
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속 4:10]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
구나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
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천사는 환상의 의미를 묻는 스가랴의 말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접답을 말하기 전에 천사는
스룹바벨의 역할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해 줬습
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나 네가 스룹바벨 앞에
서 평지가 되리라..."(7절 상). 사실 스룹바벨은 크
게 낙담했습니다. 성전 건축이 16년동안이나 중
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536년부터 시작된
성전 건축 공사는 16년이 지난 기원전 520년까지
계속해서 중단되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의 최고 지도자인 스룹바벨 입장에서는 심히 낙
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스룹바벨을 하나님은 위로해 주셨습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될 거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성
전 건축이 진행될 것이며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
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스룹바벨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6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힘'과 '능력'은 사람의 것입니다. 하지만 '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의 것으로는 성전 건축은 이뤄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성전 건축이 이뤄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그것을 가능케 됩니다.

당신에게 해결해야할 문제가 있습니까? 당신 앞에 놓여져 있는 큰 산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인간의 뜻을 구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도움보다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 어떤 높은 장벽이라도 무너질 것입니다. 그 어떤 큰 산이라 할지라도 평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스 4:11]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이까 하고

[속 4:12]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이까 하니

[속 4:13]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속 4:14]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스가라는 궁금한 것을 참지 못한 성격 소유자였습니다. 그가 본 환상에 대해 그 의미를 자세히 알기 원했습니다. 순금 등잔대의 의미는 하나님의 등불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순금 등잔대 곁에 서있는 두 감람나무였습니다.

천사는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는 자 둘이니..."(14절 상)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기름부음 받은 두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유대총독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성전 건축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역할은 성전 건축에 있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역할은 순금 등잔대에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

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야 했고 그곳에서 일할 제사장을 영적으로 준비시켜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 두 사람이 담당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두 감람나무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목사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엡 4:11]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엡 4:12]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스가랴서 5장] =====

[스 5:1]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스 5:2]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이십 규빗이요 너비가 십 규빗이니이다

[스 5:3]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끝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끝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스 5:4]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았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스가랴는 또 다른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섯번째 환상입니다. 그가 본 환상은 '두루마리'입니다. 그가 본 두루마리 크기는 엄청나게 큰 것이었습니다. "... 그 길이가 이십 규빗이요 너비가 십 규빗이니이다"(2절 하). 이것을 오늘날 크기로 환산하면

10미터 x 5미터짜리 책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큰 책이 있을까요? 스가랴가 본 두루마리는 실제적인 책이 아니라 상징적인 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본 두루마리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그가 본 두루마리 크기는 솔로몬 성전의 성소 앞에 만들어져 있었던 낭실(주랑)의 크기와 같습니다.

“[왕상 6:3]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이십 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십 규빗이며”

낭실(주랑)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제사장이 율법책을 낭독하지 않았습니까? 스가랴가 본 두루마리는 곧 '온 땅'에 울려퍼지는 율법의 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율법책을 도둑질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짓으로 율법을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자가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끝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끝대로 끊어지리라 하니"(3절 하).

천사는 스가랴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 '저주'라

고 말하였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3절 상).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함부로 대하는 모든 자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자에게도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둑의 집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사르리라..."(4절). 율법을 도둑질하는 자를 사르고 율법을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를 사르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 오신다면 이 어찌 무서운 일이 될 것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주를 퍼붓기 위해 우리 집에 오신다니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당신은 얼마나 두루마리를 존중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율법을 중시하십시오. 율법대로 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저주가 끊어질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속 5:5]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아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속 5:6]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속 5:7]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 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속 5:8]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속 5:9]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속 5:10]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속 5:11]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스가라는 또 다른 환상을 보았습니다. 일곱번째 환상입니다. 이번에는 에바와 에바에 있는 여인

을 보았습니다. '에바'는 36.44리터를 담는 도량형 용기입니다. 이 용기 가운데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7절 상).

천사는 이 여인이 '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8절 상). 그녀는 이스라엘을 악하게 만드는 '음녀'입니다. 성경은 '음녀'에 대해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음녀'는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의 자녀로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음녀는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누구든지 음녀에게 빠지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누구든지 음녀에게 빠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음녀를 에바 아귀 위에 던지시고 음녀를 덮었습니다. "...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8절 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음녀를 멸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유혹하려는 음녀를 하나님께서 사로 잡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녀가 더 이상 밖으로 나와 활동하지 못하도록 가두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귀와 추종자를 붙잡아 무저갱 속에 가두시는 모습을 연상

케 합니다.

“[계 20:1]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계 20:2]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 년 동안 결박하여

[계 20:3]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런데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두 여인'은 에바에서 올라오려고 했던 여인과 다른 여인입니다. 에바에 앉아 있던 여인은 '음녀'이지만 '두 여인'은 오히려 이 음녀를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분리시키는 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자를 '음녀'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여자를 '마리아'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라고 해서 모두 음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자라고해서 모두 마리아처럼 순결한 여인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자라고해서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악한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는 것입니다. 남존여비의 사상이 강한 나라일수록 여자에 대한 차별대우가 심합니다. 우리는 이런 차별적인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남자가 하나님의 자녀이듯 여자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모두 또 같은 자녀입니다.

이 '두 여인'은 음녀가 담겨져 있는 에바 용기를 시날 땅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두 여인이 에바를 시날 땅으로 옮겨 집을 짓는데 도움을 줬다는 사실입니다. "...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11절 상). '시날 땅'은 바벨론을 지은 곳입니다. 이곳은 악한자들이 거하는 처소입니다. '시날 땅'은 악한 자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뜻하는 상징적인 말입니다. '두 여인'은 악한 자를 특정한 장소에 가두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함입니다.

'집을 짓는다'는 말은 우상 숭배 처소를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집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집은 성전입니다. 하지만 마귀의 백성이 거하는 집은 우상숭배처입니다. 당신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마귀의 집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곳이 곧

마귀의 집입니다. 두 여인이 우상 숭배자들을 위한 집을 마련하여 저들이 그 처소에 가두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상 숭배자들을 떠나야 합니다. 더 이상 우상 숭배자들이 당신과 함께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멀리해야 합니다. 당신의 집을 우상 숭배의 장소로 만들지 마십시오. 당신의 집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스가랴서 6장] =====

[스 6:1]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

[스 6:2]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스 6:3]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스 6:4]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스 6:5]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스 6:6]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스 6:7]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스 6:8]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스가라는 또 다른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

가 본 여덟개의 환상 중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 환상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을 다스리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스가라는 '네 병거'를 보았습니다. 그 '네 병거'는 '구리 산'에서 나왔습니다. "...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1절 하).

'병거'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라고 볼 수 있는데 땅에서 움직이는 것 중에 병거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거가 '구리 산'에서 나왔습니다. '구리'<네호세트>는 '청동'입니다. 요한은 주님의 발이 청동으로 만들어진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계 1:15]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 소리와 같으며"

여기에 언급된 '주석'이 바로 '청동'입니다. 따라서 '구리 산'은 주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라에게 '구리 산'의 의미가 '온 세상의 주'라는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4절 하). 바로 구리 산에서 나온

네 병거가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또한 '네 병거'는 '하늘의 네 바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바람' <르아후>은 '영'(Spirit)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네 병거'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활동하는 천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병거는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그리고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었습니다. 이 네 말은 모두 주님의 명령을 받고 행하는 천사를 상징합니다. 네 말들이 각각의 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마다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가지 색깔의 말들은 모두 천사이지만 그 색에 따라 천사가 행할 사명을 알 수 있습니다. '붉은 말'은 전쟁과 피흘림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계 6:4]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이 나올 때에 세상의 화평이 제하여지고 서로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말은 '검은 말'이었습니다. '검은 말'은 슬픔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계 6:5]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계 6:6]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처럼 검은 말은 경제적인 고통과 그에 따른 슬픔과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말은 '흰 말'입니다. 흰 말 역시 상징적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흰 말이 등장합니다.

"[계 6:2]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사도 요한은 '흰 말'이 세상의 평화를 상징한다고

기록했습니다. '활을 가졌다'는 것은 '성취'와 '승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승리하십니다. 믿는 자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화평을 누릴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번째 말은 '어롱지고 건장한 말'입니다. '어롱지다'<베루딤>는 말은 '우박'<바라드>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우박이 땅에 떨어질 때 얼룩얼룩해진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와 비슷한 색깔의 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계 6:8]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사분의 일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청황색'<클로로스>은 '누르고 푸른색'입니다. 이 '청황색의 말'은 병든 사람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스가랴가 본 '어롱진 말'은 사람을 병들게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본 네번째 말은 '어롱졌으나 건장한 말'로 표현되었습니다. '어롱지다'란 말과 '건장하다'란 말이 서로 상

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 해석이 난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그것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가 본 네 말들은 모두 천사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일을 행합니다. 말들에 각각의 색깔이 있는 것은 천사들이 행하는 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룡지고 건장한 말'은 어떤 이에게는 질병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다른 어떤 이에게는 질병을 극복한 힘과 능력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네번째 말은 이 두 가지의 사명이 부여된 것입니다. 우리 나라 말에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네 번째 말의 사명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네 말이 이끄는 병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룡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6-7절). 검은 말과 흰 말은 북쪽 땅으로 나아갔고 어룡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북쪽 땅은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고 남쪽 땅은 애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건장한 말'입니다. 원래 건장한 말은 어룡진 말과 함께 어울어져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독립적으로 언급되

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건장한 말'은 히브리어로 <하아 뭇침>인데 이 단어는 '붉은 것들'이란 뜻의 <하아 뭇뭉>을 잘못 필사해서 생겨난 오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매우 신빙성이 있는 이유는, 네마리의 말 중에 유일하게 '붉은 말'에 대한 언급만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네개의 병거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각자 주어진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편히 쉬게 되었습니다.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8절 하). '내 영을 쉬게 한다'라는 말은 한글개역성경에서는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로 번역 되었습니다. 헬라어 칠십인역본에서는 '나의 진노를 가라앉혔느니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는 북쪽 땅을 향하여 나아갔던 검은 말과 흰 말의 영향에 의해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쉬게 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시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완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기뻐하십니다.

[속 6:9]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속 6:10]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대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속 6:11]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속 6:12]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나서 여호와와 전을 건축하리라

[속 6:13] 그가 여호와와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속 6:14]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와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속 6:15] 먼 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와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스가랴가 여덟개의 환상을 모두 본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대관식을 거행하도록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을 방문하도록 명하셨습니다. "...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10절 하).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는 아마도 성전 재건을 위한 재정 책임자였던 것 같습니다. 10절에 보면 '헬대'와 '도비야'와 '여다야'란 사람이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을 방문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로에서부터 돌아온 헬대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10절 상). 성전 재건을 위해 바벨론 땅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재정을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성전 재건 재정 책임자인 요시아에게 가서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고 그것을 여호수아 머리에 씌우라고 명하셨습니다.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11절).

하나님은 대관식에 전파될 설교 말씀을 스가랴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 보라 삭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12절 하). '삭이라 이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건축하실거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어떤 성전을 건축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스스로 성전이 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성전 자체임을 증거했습니다.

"[계 21:22]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예수님에 대해 언급하시고 예수님 스스로가 성전이 되실 것임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은 '예수'이십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아닙니다. 헤롯 성전도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세우려고

준비중인 제3의 성전도 아닙니다. '예수'가 성전입니다. 예수가 성전되게 해야 합니다. 예수가 성전되게 하는 사람은 예수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로 살아갑니다. 예수를 위해 살아갑니다. 예수 때문에 살아갑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예수'라는 성전을 진짜 성전으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성전을 건축하시고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하늘과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이 되실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13절 상).

왕이시요 제사장이신 예수로 인해 이 둘 사이에 평화와 의논이 있을 것입니다. "...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13절 하). 원래 왕과 제사장은 구분되는 직분입니다. 서로 구분이 되다보니 이런 저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서로간에 다툼도 일어납니다. 황제와 교황의 관계가 서로 좋지 않아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왕이시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화가 존재합니

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합니다. 예수
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평화가 존재합니다.

[스가랴서 7장] =====

[스 7:1] 다리오 왕 제사년 아홉째 달 곧 기슬래월 사일에 여호와와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스 7:2] 그 때에 벰엘 사람이 사레셀과 레킴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스 7:3] 만군의 여호와와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오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스가랴가 환상을 본 지 대략 2년 정도 지난 때였습니다. "다리오 왕 제사년 아홉째 달 곧 기슬래월 사일에..."(1절 상). 다리오 왕 제사년은 기원전 518년입니다. 환상을 봤을 때가 기원전 520년이었으니 대략적으로 2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벰엘에 거주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사레셀과 레킴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금식'에 대해 물었습니다. "...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오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3절 하). 여기서 언급된 '근신'<나자르>은 '구별하다', '헌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나실

인<나지르>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5월 중에 울며'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파괴된 때가 5월이었기 때문입니다.

“[왕하 25:8]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열아홉째 해 오월 칠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하 25:9]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의 아픔을 금식함으로 5월 한달간을 애통의 기간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러한 금식기간이 바벨론에 끌려간 후에도 계속해서 지켜졌는데 포로에서 귀환하여 베엘에 거주하고 있었던 백성들이 계속해서 금식기간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스 7:4]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 7:5]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칠십 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

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속 7:6]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속 7:7]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속 7:8]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속 7:9]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속 7:10]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속 7:11]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속 7:12]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속 7:13]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

럼 그들이 불려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속 7:14]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흠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금식은 잘못된 금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5절 하). 하나님은 두번씩이나 '나를 위하여'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금식이 잘못된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금식이 잘못된 것이었으면 이토록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진실한 재판을 행하는 것입니다. "...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9절 중). 진실한 재판은 공정한 재판입니다. 이는 돈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9절 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서로 간에 사랑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헌금 잘 하고 봉사 잘 하지만 사랑하지 않고 공홀이 여기지 않으면 헛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않고 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니"(10절).

하나님은 이사야에게도 금식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알려 주셨습니다. 이사야에 언급된 금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식할 때에 오락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락'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세상의 오락을 즐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세상적인 일을 행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금식을 하면서 세상적인 일을 행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금식할 때는 본인도 세상적인 일을 행해서도 안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세상적인 일을 시켜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 58:3]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 주지 아니하시나

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셋째, 금식할 때에 다른 사람과 논쟁하지 말고 다투지 말며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식할 때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치켜 세워주고 존중해 주며 스스로를 낮추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 58:4]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넷째, 금식할 때에 압제하고 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누군가를 결박하고 있다면 풀어줘야 합니다. 만일 누군가 당신에게 돈을 땔다면 면제해 줘야 합니다. 만일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용서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잘못을 행했다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입니다.

“[사 58:6]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 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다섯째, 금식할 때에 굶주린 사람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그 사람을 집에 초대하여 먹이고 입히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 것만이 금식의 전부 각 아니라 내가 먹지 않은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참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사 58:7]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섯번째, 금식할 때에 가족이나 친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입니다. 금식한다면서 오히려 가족이나 친척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참된 금식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금식할 때에 가족이나 친척을 돌아봐야 합니다. 금식한다면서 오히려 가족을 굶기면 안 됩니다. 내가 금식할지라도 가족까지 금

식의 현장으로 끌어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금식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이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금식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 가족과 친척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식할 때에 연락하지 않았던 친척에게 연락하여 안부를 묻거나 사랑을 표현하는 자세가 참된 금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금식에 대한 규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식할 때에 슬픈 얼굴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 금식하고 있네'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슬픈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마 6:16]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 6:17]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둘째, 금식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라는 것입

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식할 때에 사람을 바라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금식합니다.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식합니다. 미운 사람 때문에 금식합니다. 누군가 내 말을 안 들을 때 금식하고 싶어집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마 6:18]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셋째, 주님을 빼앗길 때에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금식해야 할 이유를 주님을 빼앗길 때에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빼앗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입니다. 하루종일 단 한 번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을 때 금식하십시오. 주님을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을 때 금식하십시오. 주님이 보고 싶지 않을 때 금식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아도 전혀 마음에 부담이 없을 때 금식하십시오. 그런 상태가 되면 이미 당신은 주님과 헤어진 사이입니다.

“[마 9:15]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
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
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스가랴서 8장] =====

[스 8:1]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스 8:2]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스 8:3]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스 8:4]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스 8:5]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스 8:6]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 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 8:7]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

부터 구원하여 내고

[스 8:8]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스 8:9] 만군의 여호와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스 8:10] 이 날 전에는 사람도 샅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샅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 주게 하였느니라

[스 8:11]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스 8:12]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스 8:13]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하나님은 남은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위해 크게 질투하시고 크게 분노하십니다. 남은 자에게 질투하시고 분노하시는게 아닙니다. 남은 자의 대적자를 향하여 질투하시고 분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2절 하).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를 시온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예수)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4,000명이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144,000명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계 14:1]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남은 자를 사랑하셔서 저들을 축복하십니다. "...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13절 중). 하나님께

서 남은 자에게 복을 주실 때 장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4절 하). 도시마다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5절). 오늘날에는 거리마다 소년과 소녀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그리운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다시금 소년과 소녀들이 거리를 메꿀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로 하여금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 주게 하였느니라"(10절 하). 일하여도 그 삿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일꾼이 정상대로 삿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런 나라는 사람이 원수가 많아집니다. 원수 때문에 평안히 출입할 수 없게 됩니다. 법이 없는 나라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연약한 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노인과 여자가 어린아이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남은 자로 하여금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남은 자로 택함

을 받은 자는 자유함을 누립니다.

[속 8:14] 만군의 여호와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격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속 8:15]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속 8:16]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속 8:17]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속 8:18]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속 8:19] 만군의 여호와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속 8:20] 만군의 여호와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스 8:21]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스 8:22]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스 8:23]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15절 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 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많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보호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600만명 이상이나 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도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모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의 억압과 눌림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은 자가 될 때에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금식하지 말고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즐기라고 말씀하십니다. "...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19절 중).

세상에 이럴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금식 현장을 살펴 보십시오. 저들이 얼마나 금식을 많이 하고 있는지 살펴 보십시오. 4월, 5월, 7월,

10월을 금식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월 금식은 기원전 586년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벽이 훼파된 것을 기념하여 금식을 드렸습니다. 5월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5월 7일)을 기념하여 드려진 금식입니다. 7월은 유대 총독 그달라가 암살당한 사건을 기념하여 드려진 금식입니다. 100월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매우 힘들게 된 때(10월 10일)를 기념하여 드려진 금식입니다.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금식을 드립니다. 말하자면 금식은 힘들 때 드리는 기도의 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은 자로부터 '금식'을 없애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날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당신은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금식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금식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희락의 영으로 가득차 있습니까? 아니면 금식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차 있습니까?

[스가랴서 9장] =====

[스 9:1] 여호와와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
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니라

[스 9:2]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
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스 9:3]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 같이, 금을 거리의 진흙 같이 쌓았도다

[스 9:4]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
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스 9:5]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
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
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스 9:6]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
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스 9:7]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잇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
겠고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스가랴 9장에서 마지막 장인 14장까지는 시간

적으로 1장~8장까지의 기간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1장~8장까지의 내용이 기원전 520년~518년의 것이라면 9장~14장은 대략적으로 기원전 480년~470년 정도쯤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간은 스가랴의 사역 후반대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9장~14장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강림과 심판에 대한 내용이 주로 기록되었습니다. 먼저 스가랴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1~2절은 수리아에게, 3~4절은 베니게에게, 그리고 5~7절은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1절에 언급된 '하드락'은 이곳에서만 언급된 지명입니다. 아마도 수리아의 북쪽 지역에 위치한 성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기원전 8세기 중엽에 앗수르 제국에 의해 정복 당했습니다. '다메섹'은 수리아의 중심 성읍이었습니다. 이 다메섹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스가랴는 경고의 음성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곳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우러러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니라"(1절 하).

2절의 '하맛'은 이스라엘과 맞붙어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이 하맛 역시 수리아의 대표 성읍 중 하나였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베니게에 속한 성읍이었는데 이 두 성읍은 지중해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두 성읍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두 성읍이 매우 지혜롭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2절 하). '매우 지혜롭다'<메오드 하캄>는 말은 한글 개역에서는 '넓은 지혜'로 번역되었습니다. '매우'<메오드>라는 말은 '넓은', '많은', '풍부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하캄>는 '기술'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해상 무역을 통해 크게 번영했으며 염색 기술과 상업술과 항해술이 매우 발달되었습니다. '매우 지혜롭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두로와 시돈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기술적 재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크고 번영된 성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번영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번성할 수 없습니다. 결국 시돈과 두로는 하나님에 의해 정복당하고 말 것입니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4절).

5절부터 7절까지는 블레셋 성읍에 대한 경고의 음성입니다. '아스글론', '가사', '에글론', '아스돗' 그리고 '가드'는 블레셋의 5대 성읍이었습니다. 블레셋 성읍 사람들은 시돈과 두로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심히 무서워하고 아파할 것입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5절 상).

악인의 최후는 비참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최후는 비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입니다. 스가랴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스 9:9]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 9:10]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십니다. 스가라는 '시온의 딸'에게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을 크게 기뻐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9절 상). 스가라는 '왕'이 임하실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스가라는 그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실제로 이뤄졌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스가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걷는게 힘들셔서 나귀 새끼를 타신게 아니었습니다. 멋져 보이기 위해 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귀를 타는 것보다 오히려 걸어가는게 훨씬 편할 수 있습니다. 나귀 새끼는 어린 아이나 타는 것이었습니다. 멋져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양복입고서 자전거 타는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전혀 멋져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 21:7]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가만히 있다고 이뤄지는게 아닙니다.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혹 당신은 누군가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으로 정성을 기울려야 합니다.

[스 9:11]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스 9:12]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스 9:13]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스 9:14]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 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스 9:15]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문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스 9:16]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 떼 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 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스 9:17]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언약의 피'로 맺어진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에게 전해졌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11절 상). 여기서 언급된 '너'는 곧 '시온의 딸'입니다. '시온의 딸'은 일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지만 이차적으로는 모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뜻합니다.

'언약의 피'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언약의 피를 백성에게 뿌

렸습니다. 이 피는 짐승을 잡은 피였지만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청년들을 한 곳에 모아 언약의 피를 뿌렸습니다.

“[출 24:4] 모세가 여호와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출 24:5]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출 24:6]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출 24:7]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출 24:8]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은 언약의 피로 맺여진 시온의 청년과 처녀들을 강건케 하십니다. “...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17절 하). 하나님의 언약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강건

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피로 말
미암아 우리는 형통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 10장] =====

[스 10:1]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스 10:2]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 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스 10:3]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발하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하나님은 소낙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소낙비와도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1절 상).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1절 하).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 구해야 합니다. 가족의 쓸 것을 구해야 합니다. 가족의 안녕을

위해 구해야 합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 구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위해 구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 구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구해야 합니다. 재정을 위해 구해야 합니다. 구할 때 비를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드라빔'은 구해도 구한 것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복술자'도 구한 것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진실되지 않은 것을 거짓으로 말합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2절 상). '드라빔' <테라빔>은 인간의 모습을 조각한 우상입니다. 근동지역 사람들이 가정의 안녕을 위해 수호신으로 드라빔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리브가의 오빠요 라헬의 아버지였던 '라반'도 드라빔을 숭배했습니다.

"[창 31:19] 그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복술자' <케셈>는 '쪼개다', '가르다'란 뜻을 가진 <카삼>이란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고대 때는 짐승을 둘로 쪼개어 간의 상태를 살펴보면서 점

을 쳤습니다. 복술자는 '진실되지 않는 것'으로 거짓말을 전합니다. '진실되지 않는 것'은 곧 '사기'입니다. 복술자는 사기치는 자입니다. 오늘날에도 '점쟁이'나 '무당'은 모두 '사기꾼'입니다. 거짓된 말로 사람을 현혹시킵니다. 누구든지 복술자의 거짓된 말에 속아 넘어가면 패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돌보지 않는 목자들에게 화를 내십니다. 또한 숫염소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발하며 내가 숫염소들을 벌하리라..."(3절 상). 여기서 언급된 '목자'는 백성을 돌보지 않는 사악한 지도자들입니다. '숫염소'는 양을 헤치는 짐승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돌보지 않는 목자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돌보시며 저들을 준마처럼 양육하실 것입니다. "...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3절 하). 하나님은 당신을 준마처럼 양육하십니다. 당신은 조랑말이 아닙니다. 힘없는 말도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 준마입니다.

[스 10:4] 모퉁잇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

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속 10:5] 싸울 때에 용사 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 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속 10:6]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
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
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속 10:7]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
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메시아를 준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믿는 자를 의미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육적인 이스라엘만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들 또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갈 3:29]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스가라는 메시야가 모퉁이돌로 말뚝으로 활로 그리고 권세 잡은 자로 오실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모퉁이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4절). '모퉁이 돌'은 반석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말뚝'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지탱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싸우는 활' 역시 악한 세력을 무찌르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권세 있는 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유다 족속을 견고케 하시고 요셉 족속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6절 상). '유다 족속'은 남유다를 의미합니다. '요셉 족속'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7절에 언급되고 있는 '에브라임' 역시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유다 족속을 견고케 한다'는 말은 예수께서 유다 족속에서 나오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북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과학이 발

달로 인해 인류학이나 고고학도 함께 발달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북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세에 북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계 7:4]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십사만 사천이니”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4,000명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단지파만 제외한 나머지 11지파의 자손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셉 지파가 '요셉과 므낫세'로 언급된 것은 '에브라임 지파'를 '요셉 지파' 언급한 것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므로 요셉의 지분이 2배로 받게 되어 두 아들의 이름으로 각각 지파 지분을 받게 된 것인데 천국에서는 에브라임의 이름 대신에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언급된 것입니다.

[스 10:8]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속 10:9]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흠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속 10:10]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앗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속 10:11]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앗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속 10:12]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들을 앗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10절 중). 하나님은 포로된 자들을 다시 고국으로 불러 모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1948년 해방 이후에 거의 800만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전 세계에는 1500만명

썸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도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10절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국경은 길르앗 땅과 레바논 땅이 될 것입니다. 길르앗 땅은 가나안 동쪽 땅입니다. 레바논 땅은 가나안 북쪽 땅입니다. 다윗의 영토대로 하나님은 그 땅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 이스라엘에게 내려질 축복이 부여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믿는 가정에게 임할 것입니다. 헤어진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것입니다. 빼앗긴 집을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흩어진 가족이 다시금 하나가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 11장] =====

[스 11:1] 레바논아 네 문을 열고 불이 네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스 11:2] 너 잣나무여 곱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으로다 바산의 상수리나무들이 곱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엷드러졌도다

[스 11:3] 목자들의 곱하는 소리가 남이여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으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남이여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으로다

스가랴서 11장은 메시아를 배척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1-3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스가랴의 간절한 애가입니다.

스가랴는 "레바논아 네 문을 열고 불이 네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1절)고 선포했습니다.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거한 나라입니다. 악의 세력이 레바논을 통과해서 이스라엘에 임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앗수르 제국이 레바논을 통과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로마군도 이곳

을 통해 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백향목이 불살라지는 것'은 레바논의 영광이 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향목은 레바논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스가라는 계속해서 '잣나무'와 '상수리나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상수리 나무들이 곡할지어다..."(2절). 잣나무와 상수리 나무는 백향목보다 못한 나무들입니다. 이는 백향목이 불살라졌으니 이보다 못한 잣나무와 상수리 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음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메시아를 거부하는 자는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를 거부한 레바논이 멸망을 당했듯이 메시아를 거부한 사람들은 모두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메시아를 거부한 자는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스 11:4]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 떼를 먹이라

[속 11:5]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속 11:6]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속 11:7] 내가 잡혀 죽을 양 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 떼를 먹일새

[속 11:8]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속 11:9]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속 11:10]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속 11:11] 당일에 곧 폐하매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와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속 11:12]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삷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삼십 개를 달아서 내 품삷을 삼은지라

[속 11:13]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삷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삼십 개를 여호와와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속 11:14]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속 11:15]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속 11:16]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흠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굵을 찢으리라

[속 11:17] 화 있을진저 양 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

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양 떼를 먹이라"고 명하셨습니다. "... 너는 잡혀 죽을 양 떼를 먹이라"(4절). '먹이라' <라아>는 말은 '양육하다', '보살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양을 먹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스가랴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양 떼를 먹일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목회자는 양 떼를 먹여야 합니다.

"[요 21:17]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은 양 떼를 먹이지 않는 목회자를 싫어하십니다. "...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18절 상). 하나님께서 '세 목자'를 제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 이는 내 마음에 그들

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
이라”(8절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세 목자’
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 목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아마
도 5절에 언급된 목자들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5절에 언급된 목자는 ‘사들인 자’와 ‘파는 자’와 ‘무
자비한 자’입니다. ‘사들인 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압제하는 세상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
성을 압제하는 이방인들을 뜻합니다. ‘파는 자’는
팔려간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
기는 지도자를 뜻합니다. 오늘날에도 힘들고 고
난 중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오히려 이용하여 자
신의 이익을 챙기는 파렴치한 목회자들이 있습니
다. 이런 자들이 ‘파는 자’입니다. ‘무자비한 자’는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일말의 양심
의 가채개도 없고 저들을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
는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혹 당신은 이런 사람은 아닌지요? 사람을 압제하
거나 지배하려고 하지는 않는지요? 돈이 있다고
가난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는지요? 혹 당
신은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
을 벌고 있지는 않는지요?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지는 않는지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을 불

쌍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지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막대기로 불쌍한 양들을 먹이십니다. "...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 떼를 먹일새"(7절). 그런데 하나님은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부러 뜨리십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10절).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백성은 죽습니다. 이는 마치 비와 같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식물은 말라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폐하시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연합'이라는 막대기도 꺾으셨습니다.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대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14절). '연합'<호블림>은 하나님과 백성간의 연결고리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을 묶는 끈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양

식이 공급됩니다. 이것은 탯줄과도 같아서 탯줄을 통해 엄마의 영양분이 태아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연결고리를 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의리를 끊으시겠다는 말씀은 더 이상 유다와 이스라엘의 연결고리를 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서로 결속되지 못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현재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은 유다 홀로 남아 있습니다. 형제를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가 꺾일 때 곧바로 이방나라의 공격을 받게 되어 유다와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소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뤄졌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일에 곧 폐하매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와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11절).

하나님은 이들에게 품삯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품삯을 드렸습니다. 그 품삯은 은 삼십 개였습니다. "... 그들이 곧 은 삼십 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12절 하). '은 삼십 개'는 은 삼십 세겔을 가리키는 것으로 노예

를 구입할 때의 금액입니다. 이는 소가 종을 죽였을 때 지불해야 하는 금액입니다(출 21:32).

“[출 21:32]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도로 쳐서 죽일지니라”

이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서 받은 금액이었습니다(마 26:15).

“[마 26:15]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 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삼십을 달아 주거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품삯으로 은 삼십 개를 준 것은 하나님을 노예처럼 취급한 것입니다. 마치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판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있어서 수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으로부터 모욕을 당한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모욕감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품삯을 토기장이에게 던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은 삼십 세겔을 던지라고 명하셨습니다. “... 내가 곧 그 은 삼십

개를 여호와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13절 하).

우리는 하나님께 모욕감을 줍니다. 하나님께 모욕감을 주고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로부터 모욕감을 당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실까요?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내치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을 내치지 않는다는 보장이라도 있을까요?

토기장이에게 던졌다는 말은 몸값을 거부했다는 표현입니다. 그 당시 토기장은 매우 천한 노동자였습니다. 토기장이에게 은 삼십 세겔을 던졌다는 것은 매우 비천한 자에게 해당되는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고서 받은 은 삼십 세겔을 대제사장에게 돌려줬을 때 대제사장은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구입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값이 하찮은 토기장이 밭을 구입하는 것과 같다는 모욕감을 주는 행동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몸값을 노예와 같은 금액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부러 예수님의 가치를 아주 낮은 것으로 표현하려는 저들의 의도였습니다. 이들의 못된 행동이 스가라는 이미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마 27:3] 그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마 27:4]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
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나 네가 당하라 하거늘

[마 27:5]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
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마 27:6]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
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 둬야
옳지 않다 하고

[마 27:7]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스가랴서 12장] =====

[스 12:1]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와 경고의 말씀
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
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스 12:2]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
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스 12:3]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
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
고 모이리라

12장부터 14장까지는 스가랴의 예언 후반부에
해당됩니다. 9-11장까지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내용이 예언되었지만 12장-14장은 성령님의 강
림으로 시작되는 교회 확산과 그리스도의 재림으
로 완성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열방 나라에게 '취
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2절 상). '취

하게 하다'<라알>는 말은 '비틀거리다', '휘청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하게 하는 잔'<사프 라알>이라는 말은 '흔들거리는 문턱'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이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열방 나라들이 흔들거리는 문턱에 걸려서 넘어질거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루살렘을 방해하거나 핍박하는 자는 취하는 잔처럼 비틀거리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게 하고 핍박하는 자는 흔들리는 문턱에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면 열방 나라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신다 예언하셨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3절 상). 그래서 누구든지 "...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3절 중)고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신 것은 예루살렘을 들어 흔드는 모든 열방 나라들이 결국은 무거운 돌에 의해 깔려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이스라엘을 훼방하는 나라는 무거운 돌에 깔려 멸망당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여러 핍박을 당했으나 여전

히 이스라엘은 우뚝 서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실제로 실현된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핍박한다면 그 사람은 무거운 돌에 깔려 눌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스 12:4]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스 12:5]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스 12:6] 그 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햇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스 12:7]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스 12:8] 그 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 날에는 다윗 같겠

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
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스 12:9]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 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실 것입니다. "...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6절 하).
아무리 악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핍박할지라도 이
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와 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역사는 1948년에 이뤄졌습니다. 기원후 70년에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전 세계
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유엔에 의해 빼앗
긴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게 되어 전 세계에 흩어
져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 땅으로 돌아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대략 800
만명이 고국 땅에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전 세계
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1500만명
정도 되지만 저들도 언젠가는 고국 땅에 돌아오
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동포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았
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 땅

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7절 상). '유다 장막'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장막<오헬>'은 일반적인 텐장막을 뜻하는 것 외에도 '성막'을 의미합니다. <오헬>의 보다 영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장막'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장막'에 거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장막에 거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계 21: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이방 나라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9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자는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는 하나님의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공격의 틈을 찾고 있습니다. 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들을 태우실 것입니다. "...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6절 중).

[스 12:10]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스 12:11] 그 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므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속 12:12]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속 12:13]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속 12:14]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10절 상).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해 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성령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는 매우 필요한 요소입니다. 특별히 이 문장은 성령님의 역할을 아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 통곡하듯 하리로다"(10절 하). 성령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게 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략 예수를 만난 유대인(메시아닉유대인)이 대략 350,000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대인 인구가 대략 2천만명 정도라고 볼 때 2퍼센트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메시아닉 주는 대략 2만명 정도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 거주한 유대인 수가 8백만명 정도 되니까 대략 0.2퍼센트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유대인들의 삶은 애통의 삶이 있습니다. '애통하다' <사페드>라는 말은 '가슴을 치다'라는 뜻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심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가슴을 패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만날 때 십자가를 떠오릅니다. 저들이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저들이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저들이 예수께 침을 뱉었습니다. 성령님은 그러한 죄악의 모습이 저들 마음에 떠오르게 함으로써 저들이 회개할 수 있게 하십니다. 저들은 심이 애통할 것입니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11절

상).

예수를 만날 때 큰 애통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큰 애통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애통을 가져야 할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저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스가라는 저들의 애통함이 므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었던 애통함과 같을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 므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11절 하). '하다드림몬'의 애통은 요시아 왕이 죽임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통해 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기원전 609년에 요시아 왕은 애굽의 바로느고와 싸우다가 므깃도 전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극심한 애통함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애통함이 예수를 만날 때 있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우리 삶에 이런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스가랴서 13장] =====

[스 13:1]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스 13:2]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스가랴 13장은 12장의 내용이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12장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때 큰 애통함의 회개가 일어난다고 예언되었습니다. 13장에서는 12장의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나게 될 때에 죄와 더러움이 씻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1절). '그 날'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나는 날입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면 그 때가 바로 '그 날'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고해서 '그 날'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에 '그 날'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죄와 더러움'이 씻겨질 것입니다. 무엇으로 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샘'입니다. 이 '샘' <마코르>이라는 단어는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죄와 더러움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습니다.

"[요일 1:7]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함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천국에 거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의 흘리신 보혈에 의해 옷을 땀 자들입니다. 더러운 옷이 깨끗함을 입고서 천국의 옷을 입게 됩니다.

"[계 7:13]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계 7:14]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에 죄와 더러움이 씻겨질 뿐만 아니라 우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 그 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2절 중). 그 뿐만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도 떠나갈 것입니다. "...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2절 하). '이 땅'은 곧 '나'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나'를 '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이 내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의 영향력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와 인격적인 만남이 이뤄진다면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의 영향력은 떠나갈 것입니다. 저들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속 13:3]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

라

[스 13:4] 그 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스 13:5]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스 13:6]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하나님은 거짓 예언자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3절). 어찌 부모가 자식을 칼로 찌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 예언자가 있으면 제일 먼저 부모가 그를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신 13:6] 네 어머니의 아들 곧 네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 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

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신 13:7]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네게서 가깝든지 네게서 멀든지 땅 이 끝
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
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신 13:8]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공홀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
어 숨기지 말고

[신 13:9]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못 백
성이 손을 대라”

신명기에서는 누군가 우상숭배를 조장하거나 하
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컷는 자에 대해서 그
의 골육 친척이 가장 먼저 그를 치라고 명하였습
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의 명하심이 너무 심하다
고 느껴질 수 있지만 우상을 싫어하는 하나님이
심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으로
예언하는 사람을 무척이나 싫어하십니다.

우리들 주변에 거짓되이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습
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함부
로 거짓 예언자의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
니다. 거짓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금품을 뜯어냅니다. 저들은 거짓된 예언으로 이간질을 시키며 간교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이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납니다. 이들 때문에 많은 교회가 쪼개지고 갈라지는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거짓 예언자는 스스로를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 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4절 상). 모든 예언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상을 보는 모든 사람에게 대해 경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으로 환상을 보고 거짓으로 예언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골육 친척들에 의해 먼저 상함을 당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들의 몸에 난 상처가 무엇 때문인지 물을 때 골육 친척에 의해 난 상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6절 하). 이러한 상처는 저들 스스로를 부끄럽게 하는 상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워해야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속 13:7]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드리우리라

[속 13:8]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삼분의 이는 멸망하고 삼분의 일은 거기 남으리니

[속 13:9] 내가 그 삼분의 일을 불 가운데에 던져은 같이 연단하며 금 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원수된 마귀는 하나님을 훼방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훼방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를 유혹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사로 잡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이러한 마귀의 계교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에게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7절 상)고 마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마귀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목자를 쳐야 백성이 흩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절에서 언급된 '내 목자'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예수를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흩어진 자들을 도우셨습니다. "...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드리우리라"(7절 하). 하나님은 흩어진 자들을 '작은 자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내 손을 드리우리라'는 말은 흩어진 백성을 도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에 의해 흩어짐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십니다. 만일 당신이 누군가에 의해 흩어짐을 당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돌봐주실 것입니다. 이 '작은 자'가 곧 '남은 자'입니다. "... 이 온 땅에서 삼분의 일은 멸망하고 삼분의 일은 거기 남으리니"(8절). 이 세상 사람 중에서 2/3은 멸망하더라도 1/3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인구 중에서 1/3 정도 되는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1/3의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스가랴의 예언과 너무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를 쉽게 구원하지는 않

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남은 자 1/3을 불 가운데에 던져 시험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 삼분의 일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9절 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 같이 연단하시고 금 같이 시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라고해서 아무런 인생의 고난이 없이 평탄한 삶을 살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고난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는 시험 받아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욥 23:1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스가랴서 14장] =====

[스 14:1] 여호와와 그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스가랴서 14장은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날이 이르리라..."(1절 상). '여호와와 그의 날'은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이 날'은 주님께서 재림하신 날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날'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다음과 언급하셨습니다.

"마 24:15]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마 24:16]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마지막 날에는 가증한 것들이 성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더럽혀지고 가정이 더럽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에는 주를 믿는 백성들이 산으로 도망쳐야 합니다. 무서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언급하신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시내산에 거한 것처럼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4장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날'은 성전이 더럽힘을 당하는 날이며 가정이 무너지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마귀는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을 더럽히려 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여러차례 더럽힘을 당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은 기원전 168년에 일어났던 시리아 왕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힌 사건입니다.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서 성전에서 우상을 경배토록 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피파네스는 돼지로 성전을 더럽혔지만 로마는 독수리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기원후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 성전이 더럽힘을 당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로마 군대는 처참하게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증거물로 삼기 위해 성전의 서쪽 성벽 한편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남은 성전벽은 '통곡

의 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곡의 벽'은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상징하는 잔재물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성전이 더럽힘을 당했음에 통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럽힘을 당했음에 통곡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무너짐에 통곡해야 합니다.

스가라는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 이스라엘의 백성이 모든 재물을 빼앗기게 되고 흠어짐을 당하게 될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 그 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1절 하).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개인적인 재물이라기 보다는 나라의 재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재물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대표하는 건물은 곧 성전입니다. '네 재물이 약탈되었다'는 말은 성전이 약탈당했다는 말입니다. 성전이 약탈 당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무너지면 성전은 약탈되는 것입니다. 시리아의 에피파네스와 로마의 디도 장군을 통해 이스라엘의 재물이 처참히 약탈당했던 것입니다.

당신도 이러한 약탈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당신의 재물을 약탈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집이 아닙니다. 당신의 돈이 아닙니다. 당신의 건강이 아닙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약탈 당한 것입

니다. 당신의 가정이 약탈당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교회가 약탈당하곡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당신의 거룩함을 약탈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하나님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십시오. 당신의 가정과 당신의 교회에 거룩함이 없어지면 그 자체는 '심히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에 당신은 심히 슬피 울며 이를 갚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날이 당신에게 임하지 않게 되길 기도하십시오.

[스 14:2]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스 14:3] 그 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스 14:4]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 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 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속 14:5]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웃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스가라는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게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2절 상). 이스라엘과 싸운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예루살렘과 싸운다'라고 표현한 것은 결국 그 싸움은 종교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라기 보다는 종교 때문에 일어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싸움이라기 보다는 종교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일은 4차에 걸쳐 이스라엘과 아랍간의 전쟁으로 일어났습니다. 1948년 1차 중동전쟁은 이스라엘 주변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참여한 아랍국가들은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총 6개 나라였습니다. 2차 중동전쟁은 그로부터 9년 뒤인 1965년에 일어났습니다. 이집트와 수에즈 운하를 놓고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3차 중동전쟁은 그로부터 11전

후인 1967년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을 상대로 '6일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4차 중동전쟁은 6년 후인 1973년 이집트와 시리아의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4차에 걸쳐 치뤄진 아랍국가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팔을 들어 주셨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모든 아랍국가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막아 주셨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와으이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3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5절 하). 하나님은 모든 거룩한 자들과 함께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의 무기가 되시며 최선의 방어책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합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거룩하십시오. 당신의 삶을 거룩함으

로 채우십시오.

[스 14:6]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스 14:7]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
으리로다

[스 14:8]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
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스 14:9]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스 14:10]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
터 첫 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
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스 14:11]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
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스가라는 계속해서 말세의 징조를 예언했습니다.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6절 상). 예수님도 '그

날의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마 24:29]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 날’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빛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7절 상).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은 오직 하나님아버지만 아시는 그 날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그 날이 언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아버지만 아십니다.

“[마 24:36]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만일 어떤 예언자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닙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는 사람

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다미선교회가 잘못된 예언을 했습니다. 다미선교회는 1992년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며 큰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장림 목사는 10월 28일에 신도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세상이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많은 신도들이 이 예언을 믿고 학업이나 직업을 포기하며 교회에 재산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예언된 날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큰 실망과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에 세상의 빛이 사라지고 세상이 두려움으로 가득차겠으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재림의 날은 믿는 자가 기뻐해야 할 날입니다. 그 날에는 생수가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루살렘에 생수가 솟아날 것입니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8절 상). 생수가 솟아날 때 예루살렘이 소성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죽은 땅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생수가 솟아날 때 소망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 같았던 사람들이 다시금 생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 날에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실 것입니다. "여호

아껴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9절 상).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은 마귀가 세상의 왕입니다.

“[요일 5:19]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하지만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세상의 왕이 쫓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12:31]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왕이 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세상에 드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9절 하).

주님께서 세상의 왕이 되실 때 온 세상이 평지가 될 것입니다.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10절 상). ‘아라바’는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과 사해와 홍해의 아카바 만에 이르는 계곡을 의미합니

다. 그런데 <아라바>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해석할 때 '평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땅이 아라바가 된다는 것은 온 세상이 낮아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10절 중). 스가라는 주님의 날에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외의 모든 땅이 낮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믿는 자 외의 모든 사람이 평지처럼 낮아지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스 14:12]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스 14:13]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스 14:14]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 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스 14:15]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은 너무나 끔찍한 것입니다. "...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12절 하). '썩다' <마카크>는 '썩다'란 뜻 외에도 '쇠퇴하다', '쇠퇴하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한 나라들은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나라들은 모두 쇠퇴하고 말았습니다. 앗수르는 기원전 612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은 기원전 539년 바사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사제국은 기원전 330년 바사의 수도 페르세폴리스가 알렉산더 군대에 의해 점령을 당함으로써 바사 제국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네 장수가 각각의 나라를 다스렸을 때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나라는 셀레쿠스가 다스리는 시리아와 플톨레미가 다스리는 애굽이었었는데 이 두 나라 모두 로마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애굽 역시 처참한 지경까지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애굽은 지극히 가난한 나라로 살아갑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오늘날 이처

럼 가난한 나라가 된 것은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로마 역시 멸망을 당하고 말았는데 기원후 476년
야만족에 의해 서로마제국이 먼저 멸망을 당했고
기원후 1453년에는 오스만 제국에 의해 동로마
제국도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는 모두 쇠
퇴하고 있습니다. 600만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독일은 1945년 연합군에 의해 패망했
으며 히틀러는 자살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공
격했던 이집트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
적 불안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라크 역시 연합군
에 의해 침공을 당한 이후로 심각한 내전과 정치
적인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ISIS가 등장하여
더욱 이라크는 혼란 속에 있습니다. 시리아는 여
러차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루면서 번번히 패패
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내전이 일어났으며 정부
군, 반군, ISIS, 쿠르드족 등 여러 세력이 충돌하면서
극심한 혼란과 전 지역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리비아 역시 내전이 일어났으며 무장세
력과 정부가 경쟁하면서 혼란 중에 있습니다. 이
처럼 이스라엘과 적대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은
한결같이 혼란과 함께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

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면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당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스 14:16]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스 14:17]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스 14:18]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스 14:19]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스 14:20]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스 14:21]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와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술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와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17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곡식을 수확하는 때에는 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초막절 때에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으니 매우 끔찍한 형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초막절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그 해답은 20절에 있습니다. 초막절에는 말 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20절 상). '말 방울'은 매우 하찮은 물건입니다. 말이 움직일 때 소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찮은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를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원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는 대제사장의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머리에 띠를 썼는데 그 머리 띠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이 늘 성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출 28:36]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나 해당되는 문구를 말방울에까지 적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초막절을 지켜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하십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명절 중 하나입니다. 유월절, 오순절과 함께 가장 중요한 명절입니다. 초막절은 종교력의 시작인 티쉬리월(유대력 7월)의 15일-22일까지 진행되는데 이 때는 태양력(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달

력)으로 9-10월에 해당되는데 대략적으로 가을 수확기입니다. 우리 나라로 말하면 추석과도 같습니다. 우리 나라 추석은 곡식을 추수하는 기간에 드려집니다.

현재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명절로 존속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나라 사람에게 추석이 매우 중요한 명절이듯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초막절은 매우 중요한 명절입니다. 지금도 곳곳에서는 천막을 치고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체적으로 각종 문화행사를 하면서 즐기는 명절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같을거라고 하셨습니다. "... 여호와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20절 하). 성전의 솥은 고기를 삶을 때 사용하는 평범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제단 앞 주발은 예식에 사용되는 소중한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날이 될 때에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약한 자도 거룩하게 되고 더러운 자도 거룩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데이빗의 영맥주석(David's Commentary):
스가랴서

초판발행	2026. 7. 8
지 은 이	데이빗리 목사
펴 낸 이	홀리타임즈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3280-7689(데이빗리 목사)
홈페이지	www.RevivalForChurch.com
이 메 일	inourlove@gmail.com

국제 신학교

꿈을향여신
국제신학교에서
학습할거야~



강력한 능력으로 강력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면 학비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역학 과정

사역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사역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목회학 과정

목회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목회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최고의 실력과 영성 능력을 겸비한 훈련과정

국제신학교는 성경과 성령 두 날개를 달고서 보다 강력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와 사역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국제신학교를 통해 당신도
강력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셔서 세계 최상위 신학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데이비드 리 학장

University of Arizona 석사
University of Hartford 석사
Gordon-Conwell 신학교 목회학석사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대표



국제신학교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51길 25
www.WSLseminary.com / 010-3280-7689